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5월 3일(화)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 정신건강팀장 유경철 ☎440-1581 • 담당자 김나영 ☎440-158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정신응급환자 초기대응부터 집중치료까지...꼼꼼히 살핀다
 - 인천성모병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개소 -
 - 응급치료·처치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위한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 마련 -

인천광역시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내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출동·분류·이송 등 초기대응과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2일 개소하고, 본격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보건복지부 정신응급의료센터 공모에서 최종 운영자로 선정됐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동시에 진행해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신속하게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센터는 응급의료센터 내 정신응급환자 전용 병상 2개를 마련하는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전담전문의와 행정인력을 신규 채용했다. 또 전담 간호사 5명을 배치하는 등 센터 개소를 준비해왔다.

센터는 24시간 상시 대응체제를 갖추고 환자 발생 시 최대 3일간 관

찰 및 내·외과 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하게 된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인천지역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으로 그동안 기존 정신의료기관에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응급치료·처치가 필요한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체계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